

2. 지구의 허파는 불타고 있지 않다

지구의 허파를 구하자

- 55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광대한 열대우림인 아마존은 산소를 배출할 뿐만이 아니라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는 이산화탄소를 저장한다.
- 소고기와 우유를 생산하기 위한 목초지는 농경지 면적의 2배나 된다. 지구 전체의 농업 용지 중 거의 절반이 소, 양, 염소, 버펄로 같은 되새김질동물 가축을 기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그 말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 아마존의 식물들은 스스로 생산해 내는 산소의 60%가량을 호흡 과정(밤에)에서 소비한다. 나머지 40%는 열대우림의 바이오매스를 분해하는 미생물의 몫이다. 아마존 생태계 전체를 놓고 볼 때 아마존이 세계 산소에 기여하는 양은 사실상 제로다.
- 하지만 삼림 개간으로 아마존이 분할(파편화)되고 있으며 보존 가치가 높은 생물종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환경 식민주의자의 모순된 눈물

- 세계적으로 볼 때 숲이 차지하는 면적은 점점 넓어지고 있다. 화재 발생 빈도도 낮아지고 있다. 화재로 소실되는 숲의 면적이 최근 25%나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경제성장 덕분이다. 경제 성장은 도시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은 화전민 생활을 청산하게 된다. 경제 성장은 농부가 불을 지르는 대신 기계를 이용해 숲을 개간할 수 있게 해 준다.
- 농업 생산성 증가와 환경 보호 노력 덕분에 숲 면적이 넓어지고 있다.
- 탄소 배출과 기후 변화는 위험하다. 하지만 우리는 기후 변화가 불러 올 모든 영향이 자연환경과 인간 사회에 나쁜 방향으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오래된 원시림은 다양한 생물종이 살아가는 대체 불가능한 서식지다. 새롭게 조성된 숲은 단일 품종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나무 농장 같은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낭만과 가난한 땅의 현실

인류발전의 밑거름이 된 불과 삼림개간

- 전 지구적으로 진행된 불을 이용한 삼림파괴는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 농업 발전에 일조했다. 블루베리, 헤이즐릿, 곡식 등 유용한 작물을 기를 수 있게 된 것이다. 놀랍게도 현재는 많은 나무의 씨앗이 불이 나야 발아가 되도록 진화한 상태다.
- 인간에게는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것은 축복이며 인간을 동물과 구분 짓는 요소다. 유럽인은 그렇게 믿었다.

그린피스와 파편화된 숲

- 그린피스를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브라질의 경제 개발 필요성에 둔감하다. 그 결과 그들은 오히려 목장과 농장을 불필요하게 확장하고 열대 우림을 파편화하는 정책편에 서게 된다. 환경 정책은 궁극적으로 “집약화(고밀화)”로 향해야 한다. 땅은 더 적게 쓰고 식량은 더 많이 생산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환경주의자들이 옹호하는 정책은 농업을 조방화(저밀화)해 농부들이 정치적으로 반발하거나 풀뿌리 저항을 일으키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삼림 파괴를 부추기게 된다.
- 원시림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은 농부들을 특정지역으로 몰아서 집중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비교적 야생 상태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며 원시림을 지킬 수 있다.